

국민임대도 무더기 미분양

주공 광주 수완지구 분양을 58.7% 그쳐

광주지역 국민임대 아파트에서도 무더기 미분양 사태가 빚어졌다. 저렴한 보증금·임대료 등 분양조건이 저소득층에 유리해 분양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불황 한파를 피하지 못했다.

26일 주공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수완지구 휴먼시아 국민임대 6.8단지 1천942세대를 대상으로 최근 입주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천141명이 신청을 마쳐 접수율이 58.7%에 그쳤다. 주공은 조만간 재모집에 나설 방침이다.

평형별(전용면적 기준)로는 6단지

46㎡형이 640세대 공급에 186명만이 신청해 고작 29%에 불과했고, 51㎡형은 364세대 중 128명이 신청해 35.1%를 기록했다.

6단지에 비해 공단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8단지는 상대적으로 신청자가 많았으나 미분양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39㎡형은 88.9%(552 중 491), 59㎡형은 87.2%(274 중 239)의 입주신청을 기록했다.

주공 관계자는 "공단으로부터 거리가 멀고, 비교적 넓은 평수가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공급한 5개 단지의 경우 계약률이

95%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6.8단지도 추가 모집을 통해 100% 계약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수완지구 6.8단지의 임대 조건은 39㎡형이 보증금 1천600만원에 월 임대료 9만원, 46㎡형이 2천100만원에 11만6천원, 51㎡형은 2천600만원에 14만2천원, 59㎡형은 3천100만원에 19만7천원 수준이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 무주택 세대주로, 3인 이하는 월평균 272만6천원, 4인은 299만3천원, 5인은 306만9천원, 6인 이상은 363만1천원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6단지는 내년 10월, 8단지는 내년 9월에 입주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에어컨 대신 족부인으로 시원한 여름밤을!
26일 신세계 이마트 용산역점에서 족부인, 대자리 등 여름침구를 최대 30%까지 할인판매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땅값 8개월만에 올랐다

지난달 0.01%↑ ... 전남은 2개월 연속 상승세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광주지역 땅값이 8개월만에 상승세로 반전됐다.

그러나 전국 평균 땅값은 3개월 연속 오르면서 상승폭도 커진 것으로 나타나 광주지역 땅값 상승은 나뉘고 과대에 따른 반등 수준이란 지적이다.

26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지역 땅값은 전월보다 0.01% 상승해 지난해 10월이후 8개월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광주지역 땅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11월부터 전월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서 11월 -0.48%를 기

특한데 이어 12월에는 -1.31%까지 급락했다. 이후 나뉘고 줄었지만 올해 5월까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다 지난달에 비로소 성장률이 플러스로 반전됐다.

그러나 지난달 상승에도 불구하고 올해 광주지역 땅값 상승률은 -0.56%로 아직도 마이너스권에 머물러 있다.

반면 지난달 전국의 땅값은 전월보다 0.16% 상승해 4월 이후 3개월째 오르세를 이어갔다. 전국의 땅값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5개월 연속 떨어졌다가 4월에 0.06% 오른 데 이어 5월에도 0.11%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지역 땅값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지난달 전국 지가 하락지역 5위권에 광주 북구(-0.031%, 2위)와 광주 동구(-0.026%, 5위)가 포함돼 있는 등 지역경기 침체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달 광주의 토지 거래량은 4천 177필지에 98만1천㎡로, 전년 동월대비 필지수 기준으로는 -0.4% 감소했지만 면적으로는 17.1%가 늘어 건당 거래 단위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남지역은 지난달 땅값이 0.04% 올라 5월(0.01%)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고, 1만2천188필지에 3천228만㎡가 거래돼 1년전에 비해 필지수와 면적에서 각각 5.7%와 37.8%가 증가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주간 증시 포커스

주도주에 대한 관심 지속 펀드환매 등 수급여건은 체크

주요 기업들의 어닝 서프라이즈(갑작 실적)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주 뉴욕증시는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9,000포인트대에 진입한 다우지수는 작년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 이후 급락 과정에서 형성된 만만치 않은 기술적 저항력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주 발표될 펀더멘탈 지표에 따라 향후 지수의 반등 탄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미국 주택경기에 대한 평가도 이번 주 발표될 주택매매지표 및 주택가격을 통해 또한 번의 점검을 받게 된다.

9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한 국내증시에 있어 경기회복의 기대감은 더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주 발표된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보다 2.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1분기보다 그 성장 폭이 더욱 커졌다. 비록 향후 재정지출의 효과는 점차 감소할 것이지만, 수출경기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지난 분기에 민간소비나 설비투자의 개선 양상이 동시에 펼쳐진 점은 경기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북돋울 수 있는 요소라고 판단된다.

펀더멘탈 측면의 개선 기대감은 수출주들을 필두로 최근 실적을 발표한 국내 기업들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표면적으로 실적 모멘텀의 경우 주가의 선반영 여부 가 늘 고민거리지만 보다 근본적인 측면에서 시장의 체력이 강해지고 있음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부분은 국내증시 상승세의 주된 동력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에도 힘을 실어줄 수 있다. 지리하게 유지되던 박스권을 상향 돌파한 국내증시는 추가 상승을 위한 시도를 이번 주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은 분명히 남아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 발표될 미국의 경제성장률이나 국내 산업활동동향이 시장에서 지라나고 있는 경기회복 기대감의 기갈 언덕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수급 측면에서는 지수의 상승 폭이 둔화됨에 따라 국내 주식형 펀드에서 환매압력이 재차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서 지켜보아야 한다. 또한 실적을 발표한 이후 모멘텀 소멸 조짐을 보였던 IT나 자동차 등 기존 주도주들이 상승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외국인들의 매수업종 다변화 움직임도 관심거리다. 여전히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대 표주 중심의 접근이 우선시되어 야한다는 기존 시각에 변화는 없다. 다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요 인들에 대해 점검을 병행하는 대응이 전략적으로 필요한 시점임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로또복권 (제347회)			팝콘복권 (제170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3 8 13 27 32 42	10		1	5억	3조 246543
			2	1억	5조 288109
			3	1천만	4조 982985
			4	1백만	각조 67100
			5	50만	각조 2109
			6	2천	각조 04
			7	1천	각조 22
					각조 40
					각조 9
					각조 3
					각조 5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송정점 (062) 227-9970

순천점 (061) 752-994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조이 여행사

234-3222

무인 -- 연결 백두산 전세기

백두산(백두대간) 4W 799,000

백두산(백두대간) 5W 899,000

백두산(백두대간) 4W 849,000

백두산(백두대간) 5W 1,049,000

제주 2박3일 패키지 여행

128,000

188,000

279,000 ~

카멜리어로 떠나는 큐슈 온천여행

4W 369,000 ~

4W 459,000 ~

대이고속열차로 떠나는 대마도 여행

3W 399,000 ~

남극주 요차열차 온천여행

4W 549,000 ~